

장밋빛 찬란한 아름다움, 요르단 페트라

글_채지형 여행작가(www.traveldesigner.co.kr)



중동에서 추천여행지 딱 한 곳만 꼽아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세계 신 7개 불가사의,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놀라운 자연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곳,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곳이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다.

나바티안 사람들이 만든 페트라는 사방이 절벽으로 방어된 천연 요새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중 하나. 그리스어로 '바위' 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요르단 강, 갈릴리 호수, 레바논의 계곡으로 이어지는 협곡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멋진 자연 경관이 만들어졌다. 영국의 시인 존 보건 신부는 페트라에 반해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같은 붉은 도시" 라고 감탄했을 정도.

중동 최고의 문화유산인 페트라를 만나기 위해 아침식사도 거른 채 이른 아침 지도를 챙겨 들고 출발했다. 입구에 있는 모세의 샘에서 목을 축이고 매표소를 지난다. 페트라 안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낙타와 말을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페트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호객꾼들을 외면하고 한걸음씩 페트라 속으로 들어간다. 얼마 가지 않아 본격적인 페트라 왕국의 진입로, 시크(바위틈에 난 좁은 길)가 나타난다.

폭은 겨우 3~4m인데 협곡의 높이는 무려 50m. 좌우가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으로 된 시크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지만 비가 오면 배수로 역할도 한다. 웬지 어디에선가 시냇물이라도 졸졸 흐를 것 같은 시크. 협곡의 장대함도 장대함이지만, 붉은 색 바탕에 자연스럽게 무늬가 흐르고 있어 걸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빛이 반짝이는 바위들, 시크안의 어두움과 하늘을 지배하는 빛을 연결하는 은근한 붉은 빛의 협곡. 층층이 다른 붉은 색들까지 빛과 어둠이 만들어 내는 대조와 붉은 아름다움이 전해주는 오묘함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 천연의 바위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방어벽 역할을 해왔다. 그 튼튼한 자연의 성곽 덕분에 나바티안 측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 교역으로 크게 성장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유난히도 어두운 시크 안쪽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스산한 바람에 등골도 오싹해졌다. 시크 끝에 갔을 때는 한동안 전율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곳에는 보물창고라는 뜻을 가진 거대한 ‘알 카즈네’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서 주인공 해리스 포드가 성배를 찾아 들어가던 바로 그 신전이였다. 이 신전은 6개의 코린트식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둥은 물론 각종 장식들도 바위산을 깎아 만든 것으로 은근한 세련미를 가지고 있었다. 알 카즈네 꼭대기에는 향아리처럼 생긴 조각이 있는데,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 때문에 ‘알 카즈네’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했다.

페트라의 신비로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알 카즈네를 지나자, 로마시대에 만들어졌던 시가지들이 등장했다. 8000석 규모의 로마식 원형극장, 그리고 알 카즈네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알 데이즈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장소인 알 데이즈에는 여행자들이 편하게 앉아 하염없이 알 데이즈를 감상할 수 있는 동굴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커피 한잔을 주문해 놓고 땀을 닦고 앉았다. 그리곤 바람의 소리, 바람의 느낌,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위대한 문화유산을 지그시 바라봤다. 과거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만나는 그 순간,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페트라를 여행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은 이틀 정도.



하루에 돌아볼 수는 있지만 뽀뽀하다. 입구부터 수도원까지 이어지는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 바위산을 하이킹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이틀 정도는 여유 있게 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페트라의 멋진 풍광을 사진에 담고 싶다면 아침 일찍 부지런히 움직이자. 보물창고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 찬란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